

중고시기 《論衡》, 《三國志》, 《世說新語》 중의 이중부정문 구조 연구

玄盛峻*

<目 次>

1. 들어가며
2. '부정사+부정사' 구조
3. '부정사+조동사+부정사' 구조
4. 나오며

1. 들어가며

이중부정문은 형식적으로는 두 개의 부정사를 함께 사용하지만, 의미상으로는 긍정을 나타내는 중요한 언어현상 중의 하나이다. 중국어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중부정형식은 갑골문에서 이미 사용되었고¹⁾, 상고시기²⁾를 거쳐 중고시기에 와서는 각종 문헌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여러 변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고시기 언어를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문헌이라고 할 수 있는, 《論衡》³⁾, 《三國志》⁴⁾, 《世說新語》⁵⁾에서 사용된 이중부정문을 주요 연구 대상

*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교양학부 강의교수

1) 甘霖(2001)에 따르면, 갑골문에 이미 '亡不', '不亡', '弗亡', '勿亡', '毋亡', '不毋', '勿不', '毋不', '毋勿', '毋弗' 등 10가지 유형의 이중부정형식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2) 본고에서는 중국어사 시기 구분에 있어, 중국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분류방식에 근거하여 선진(先秦)부터 서한(西漢)까지를 '상고(上古)'라 칭하고, 동한(東漢)부터 수(隋)까지를 '중고(中古)'라 칭하기로 한다.

으로 삼아, 통계조사를 적절히 활용하여, 중고시기 세 문헌에 나타나는 이중부정문이 구조적으로 어떠한 유형으로 분류되는지 상세히 살펴보고, 선진시기 이중부정문과의 비교를 통해, 중고시기 이중부정문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특징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부정사+부정사' 구조

이러한 '부정사+부정사' 구조는 《論衡》에는 67개가 사용되었고, 《三國志》에는 74개, 《世說新語》에는 23개가 각각 사용되었다.

'부정사+부정사' 구조로 이루어진 이중부정문은 다시 부정동사와 부정부사가 연속으로 결합하여 이루어진 이중부정문과, 두 개의 부정부사가 연속적으로 사용되어 이루어진 이중부정문으로 나눌 수 있는 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1. 부정동사와 부정부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구조

선진시기에 사용된 부정사는 15개가 있었는데⁶⁾, 이 중에서 중고시기 《論衡》, 《三國志》, 《世說新語》의 이중부정문에 사용된 부정사로는 '無', '罔', '靡' 등 3개의 부정동사와 '不', '非' 등 2개의 부정부사가 있고, 아울러 중고시기에 만들어진 이음절 부정부사 '未嘗'과 '未曾'이 있다.

부정동사와 부정부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이중부정문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王充著〔東漢〕, 黃暉撰, 《論衡校釋》, 中華書局, 1990.)을 저본으로 삼음.

4) (陳壽〔晉〕, 裴松之注〔宋〕, 《三國志》, 中華書局, 1982.)을 저본으로 삼음.

5) (劉義慶撰〔劉宋〕, 張萬起·劉向慈譯注, 《世說新語譯注》, 中華書局, 1998.)을 저본으로 삼음.

6) 韓學重, 〈先秦散文의 否定法 研究〉, 忠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3 참조.

2.1.1. 부정동사 '無'와 부정부사 '不'로 이루어진 구조

중고시기 세 문헌 중에서 부정동사 '無'와 부정부사 '不'로 이루어진 이중부정문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吉人舉事, 無不利者. 《論衡·初稟》
(길한 사람이 일을 하면 순조롭지 않은 것이 없다)
- (2) 業無不能達. 《論衡·程材》
(직업은 할 수 없는 것은 없다)
- (3) 將士無不悅喜. 《三國志·魏書·任城威王彰傳》
(부하들은 기뻐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 (4) 蜀人無不追思允. 《三國志·蜀書·董允傳》
(蜀나라 사람들 중에 董允을 그리워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 (5) 曾有好車, 借者無不皆給. 《世說新語·德行》
(일찍이 고급 수레를 가지고 있었는데,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빌려 주지 않은 적이 없었다)
- (6) 武子喪時, 名士無不至者. 《世說新語·傷逝》
(武자가 죽었을 때, 유명인사 중 가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無'는 중고시기 부정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정동사이고, '不'은 가장 대표적인 부정부사인데, 이 둘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이중부정문은 《論衡》에는 50회 출현하고, 《三國志》에는 47회, 《世說新語》에는 15회 출현한다. 이러한 '無不'형식은 중고시기 세 문헌의 이중부정문 구조에서 가장 많은 출현빈도를 나타내고 있어, 이 시기의 대표적인 이중부정문 구조라고 할 수 있다.

2.1.2. 부정동사 '無'와 부정부사 '非'로 이루어진 구조

중고시기 세 문헌 중에서 부정동사 '無'와 부정부사 '非'로 이루어진 이중부정문은 다시 두 가지 구조로 나눌 수 있는 데, 먼저 부정동사 '無'가 부정부사 '非'와 결합하는 '無非'형식의 이중부정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7) 伯樂學相馬, 顧玩所見, 無非馬者. 《論衡·訂鬼》
(伯樂이 말을 감별하는 법을 배울 때, 자세히 그가 보는 것을 살펴보면 말이 아닌 것이 없었다)

- (8) 長史作數百語, 無非德音. 《世說新語·傷逝》
(長史는 수백마디의 말을 했는데, 덕담이 아닌 것이 없었다)

위와 같은 '無非'형식의 이중부정문은 《論衡》에 3회 출현하고, 《世說新語》에 1회 출현하지만, 《三國志》에는 그 용례가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부정부사 '非'와 부정동사 '無'가 결합하는 '非無'형식의 이중부정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9) 非無干將、篠籥之才也. 《論衡·效力》
(干將과 같은 보검이나篠籥과 같은 양질의 대나무 같은 재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 (10) 然而未見先發者, 非無其心也. 《三國志·魏書·任峻傳》
(그러나 먼저 말하는 사람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 (11) 非無文采, 酷無裁制. 《世說新語·文學》
(문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로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非無'형식의 이중부정문은 《論衡》에는 1회 출현하고, 《三國志》에는 2회, 《世說新語》에 2회 출현한다.

2.1.3. 부정동사 '罔'과 부정부사 '不'로 이루어진 구조

중고시기 세 문헌 중에서 부정동사 '罔'과 부정부사 '不'로 이루어진 이중부정문을 예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12) 今我民罔不欲喪. 《論衡·藝增》
(지금 우리 백성들은 (당신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 (13) 百寮嚴憚, 罔不肅然. 《三國志·魏書·鮑勛傳》
(모든 관료들이 경외하여, 단정하고 예의바르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정동사 '罔'과 부정부사 '不'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이중부정문은 《論衡》에 2회 출현하고, 《三國志》에는 4회 출현하지만, 《世說新語》에는 그 용례가 보이지 않는다.

2.1.4. 부정동사 ‘靡’와 부정부사 ‘不’로 이루어진 구조

중고시기 세 문헌 중에서 부정동사 ‘靡’와 부정부사 ‘不’로 이루어진 이중부정문을 예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14) 河北地高, 壤靡不乾燥. 《論衡·藝增》
(황하이북의 지세가 높아, 토양이 건조하지 않은 곳이 없다)
- (15) 臣聞五帝三王, 靡不明本立教. 《三國志·魏書·鮑助傳》
(신은 삼황오제는 근본을 명확히 하지 않은 적이 없고, 교화를 수립하지 않은 적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부정동사 ‘靡’와 부정부사 ‘不’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이중부정문은 《論衡》에는 1회 출현하고, 《三國志》에는 4회 출현하지만, 《世說新語》에는 그 용례가 보이지 않는다.

2.1.5. 부정동사 ‘無’와 부정부사 ‘未嘗’으로 이루어진 구조

‘未嘗’은 상고시기에는 부정부사 ‘未’와 부사 ‘嘗’이 결합된 ‘수식(偏正)식’ 구조를 이루었다가, 중고시기에 들어와 단어의 이음절화가 보편화되면서, ‘복합(複合)⁷⁾’의 방식에 의해 고정되어 굳어지면서 만들어진 이음절 부정부사이다.

중고시기 세 문헌 중에서 부정동사 ‘無’와 부정부사 ‘未嘗’으로 이루어진 이중부정문은 《論衡》에만 하나의 용례가 보인다.

- (16) 陽氣尙盛, 未嘗無雷雨也. 《論衡·感類》
(양기가 아직도 왕성하니 천둥을 동반한 비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7) 중고시기 이음절 부정사가 만들어진 또 다른 방법으로는 ‘파생(派生)’이 있는데, 이는 하나의 어간에 접미사를 붙여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고시기에 새롭게 등장한 접미사로 ‘復’가 있는데, 이 ‘復’가 부정사 뒤에 붙어 ‘不復’, ‘勿復’, ‘未復’, ‘非復’ 등의 파생식 이음절 부정사가 만들어졌다.(柳士鎮, 1992, 高育花, 2007 참조)

2.2. 부정부사와 부정부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구조

중고시기 세 문헌에서 두 개의 부정부사가 연속적으로 결합하여 이루어진 이중부정문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2.1. 부정부사‘非’와 부정부사‘不’로 이루어진 구조

중고시기 세 문헌 중에서 부정부사 ‘非’와 부정부사 ‘不’로 이루어진 이중부정문을 예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1) 六國之兵非不銳. 《論衡·非韓》
(육국의 군대가 정예롭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 (2) 昔堯優許由, 非不弘也. 《三國志·蜀書·秦宓傳》
(옛날에 堯가 許由에게 양위를 했을 때, 그 아량이 넓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 (3) 劉尹非不能逮, 直不逮. 《世說新語·品藻》
(劉尹처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지 않는 것이다)

부정부사 ‘非’와 부정부사 ‘不’이 연속적으로 결합하여 이루어진 이중부정문은 《論衡》에는 8회 출현하고, 《三國志》에는 5회 출현하며, 《世說新語》에는 3회 출현한다.

2.2.2. 부정부사 ‘未嘗’과 부정부사 ‘不’로 이루어진 구조

중고시기 세 문헌 중에서 부정부사 ‘未嘗’과 부정부사 ‘不’로 이루어진 이중부정문을 예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4) 自漢擊匈奴, 而廣未嘗不在其中. 《論衡·禍虛》
(漢이 匈奴를 격퇴하기 시작한 이후로, 저 廣이 그 속에 일찍이 참여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 (5) 自古及今, 未嘗不然也. 《三國志·魏書·高堂隆傳》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렇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 (6) 丞相還臺, 及行, 未嘗不送至車後. 《世說新語·德行》
(승상이 관소에 나갈 때면 따라 나갔고, 수레 뒤에서 배웅을 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부정부사 ‘未嘗’과 부정부사 ‘不’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이중부정문은 《論衡》에는 1회 출현하고, 《三國志》에는 11회 출현하며, 《世說新語》에는 2회 출현한다.

2.2.3. 부정부사 ‘未嘗’과 부정부사 ‘不’로 이루어진 구조

부정부사 ‘未嘗’은 ‘未嘗’과 마찬가지로 상고시기에는 부정부사 ‘未’와 부사 ‘嘗’이 결합된 ‘수식(偏正)식’ 구조를 이루다가, 중고시기에 들어와 ‘복합(複合)’의 방식에 의해 고정되어 굳어지면서 만들어진 이음절 부정부사이다.

중고시기 세 문헌 중에서 부정부사 ‘未嘗’과 부정부사 ‘不’로 이루어진 이중부정문은 《三國志》에만 하나의 용례가 보인다.

- (7) 亂禍之興作, 未曾不由廢立之間也. 《三國志·蜀書·劉封傳》
(궁중에서 일어나는 화란은 모두 후계자를 세우고 폐하는 일에서 연유되지 않은 적이 없다)

아래의 표는 중고시기 《論衡》, 《三國志》, 《世說新語》에서 나타난 ‘부정사+부정사’구조 이중부정문의 종류와 그 출현횟수를 정리하고, 아울러 선진시기 이중부정문도 함께 나타내었다.⁸⁾

8) 선진시기 이중부정문의 자료는 玄盛峻, 2008 참조.

【표1】 상·중고시기 ‘부정사+부정사’구조 이중부정문 통계표

구조		시기	先秦				東漢	魏晉南北朝	
		문헌	論語	左傳	孟子	莊子	論衡	三國志	世說新語
부정동사 + 부정부사	無不	0	23	7	16	50	47	15	
	無非	0	0	2	5	3	0	1	
	無弗	0	0	1	0	0	0	0	
	罔不	0	0	0	0	2	4	0	
	靡不	0	0	0	0	1	4	0	
	蔑不	0	2	0	0	0	0	0	
부정부사 + 부정동사	不無	0	1	0	0	0	0	0	
	非無	0	0	1	0	1	2	2	
	未嘗無	0	0	0	0	1	0	0	
부정부사 + 부정부사	非不	1	5	8	8	8	5	3	
	未嘗不	0	0	0	0	1	11	2	
	未曾不	0	0	0	0	0	1	0	
統 計		1	31	19	29	67	74	23	

위의 【표1】을 통해 보면, 중고시기 세 문헌의 ‘부정사+부정사’구조 이중부정문이 선진시기 이중부정문과 비교하여 볼 때 지니는 가장 큰 특징으로는, 중고시기에 이음절 부정사 ‘未嘗’과 ‘未曾’이 생겨나면서, 이중부정문에도 이들 부정사가 사용되어, ‘未嘗不’, ‘未嘗無’, ‘未曾不’ 형식의 새로운 이중부정문이 출현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3. '부정사+조동사+부정사' 구조

'부정사+조동사+부정사' 구조로 이루어진 이중부정문은 《論衡》에는 20개가 사용되었고, 《三國志》에는 48개, 《世說新語》에는 15개가 각각 사용되었다.

중고시기에 상용된 조동사로는 17개가 있는데⁹⁾, 《論衡》, 《三國志》, 《世說新語》의 이중부정문에 사용된 조동사는 '가능류 조동사(可能類助動詞)' '得', '可', '能', '可以'와 '바람류 조동사(意願類助動詞)' '敢', 그리고 '응당류 조동사(應當類助動詞)' '宜' 등 6개가 있다.

다음은 이들 조동사가 사용된 이중부정문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3.1. '부정사+조동사(得)+부정사'구조

중고시기 세 문헌 중에서 두 개의 부정사와 조동사 '得'이 사용되어 만들어진 이중부정문을 예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1) 以目視頭, 頭不得不動. 《論衡·物勢》
(눈으로 머리 위를 바라볼 때, 머리는 움직이지 않을 수 없다)
- (2) 外不堪其責, 則不得不相怨. 《三國志·吳書·諸葛恪傳》
(외부에서는 당신의 요구를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로 원한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 (3) 勝公榮者, 不得不餘飲酒. 《世說新語·簡傲》
(公榮보다 나은 사람은 그와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없소)

조동사 '得'은 중고시기 세 문헌의 용례 중에서 모두 두 개의 부정사 '不'와 결합한 '不得不' 형식의 이중부정문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예는 《論衡》에는 7회 출현하고, 《三國志》에는 10회 출현하며, 《世說新語》에는 7회 출현한다.

9) 段業輝(2002)에 따르면, 중고시기에 상용된 '可能類助動詞'로는 '可', '可以', '能', '耐', '而', '克', '足', '足以', '得' 등 9개가 있고, '意願類助動詞'로는 '欲', '敢', '肯', '願' 등 4개가 있으며, '應當類助動詞'로는 '應', '當', '宜', '須' 등 4개가 있다.

이밖에도 조동사 '得'은 부정부사 '不', 부정동사 '無'와 함께 사용되어 이중부정문을 이루기도 하는데,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면,

- (4) 夫雷, 火也. [火]氣刺人, 人不得無迹. 《論衡·雷虛》
(우레는 불이며, 그 화기가 사람을 굽는 듯 하니, 사람이 흔적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용례는 흔치 않으며, 《論衡》에만 1회 나타나고, 《三國志》와 《世說新語》에는 그 용례가 보이지 않는다.

3.2. '부정사+조동사(可)+부정사'구조

중고시기 세 문헌 중에서 두 개의 부정사와 조동사 '可'가 사용되어 만들어진 이중부정문을 예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5) 吾語大將軍, 不可不廢之. 《三國志·魏書·高貴鄉公紀》
(내가 대장군에게 이야기 한다면 그를 폐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오)
- (6) 民富矣, 不可不教也. 《三國志·魏書·杜畿傳》
(백성이 잘 살게 되면,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 (7) 不如公榮者亦不可不與飲. 《世說新語·任誕》
(公榮보다 못한 사람은 역시 그와도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없소)

조동사 '可'는 중고시기 세 문헌의 용례 중에서 대부분 두 개의 부정부사 '不'와 결합한 '不可不' 형식의 이중부정문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예는 《三國志》에는 25회 출현하며, 《世說新語》에는 4회 출현하지만, 《論衡》에는 그 용례가 보이지 않는다.

이밖에도 조동사 '可'는 부정부사 '不', 부정동사 '無'와 함께 사용되어 이중부정문을 이루기도 하는데,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면,

- (8) 周鼎之神, 不可無也. 《論衡·亂龍》
(周鼎의 신기함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 (9) 天下可無洪, 不可無君. 《三國志·魏書·曹洪傳》
(천하에 저 曹洪은 없어도 괜찮겠지만, 당신만은 없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례는 흔치 않으며, 《論衡》에 1회, 《三國志》에 1회만 나타나고, 《世說新語》에는 그 용례가 보이지 않는다.

3.3. '부정사+조동사(能)+부정사' 구조

중고시기 세 문헌 중에서 두 개의 부정사와 조동사 '能'이 사용되어 만들어진 이중부정문을 예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10) 凡人在世, 不能不作事. 《論衡·辨崇》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 (11) 私怨人情, 不能不見. 《三國志·蜀書·劉封傳》
(당신이 인간관계에서 맺은 사적인 원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 (12) 有愧於叔達, 不能不恨於破甑. 《世說新語·假譎》
(叔達과 비교하니 부끄러워, 시루를 깬 것에 대해 한이 맺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동사 '能'은 중고시기 세 문헌의 용례 중에서 대부분 두 개의 부정부사 '不'와 결합한 '不能' 형식의 이중부정문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예는 《論衡》에는 7회 출현하고, 《三國志》에 1회, 《世說新語》에 1회 출현한다.

이밖에도 조동사 '能'은 부정부사 '不'와 부정동사 '無'와 함께 사용되어 이중부정문을 이루기도 하는데,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면,

- (13) 聖人行事不能無失. 《三國志·魏書·高貴鄉公紀》
(성인이 일을 한다 하더라도 실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 (14) 文學鏃鏃, 無能不新. 《世說新語·賞譽》
(문학적 자질이 날카롭고 출중하여, 각 방면에 새롭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용례는 흔치 않은데, ‘不能無’식 이중부정문은 《三國志》에만 2회 나타나고, ‘無能不’식 이중부정문은 《世說新語》에만 1회 나타난다.

3.4. ‘부정사+조동사(可以)+부정사’ 구조

중고시기 세 문헌 중에서 두 개의 부정사와 조동사 ‘可以’가 사용되어 만들어진 이중부정문을 예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15) 士不可以不弘毅. 《論衡·效力》
(선비는 강직하고 의연하지 않으면 안된다)
- (16) 是亦將軍之關中、河內也, 不可以不先定. 《三國志·魏書·荀彧傳》
(이곳은 바로 장군님의 관중, 하내 지역이니, 이곳을 먼저 안정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 (17) 天命不可以不答. 《三國志·魏書·荀彧傳》
(천명은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不可以不’ 유형의 이중부정문은 《論衡》에 1회 출현하고, 《三國志》에는 3회 출현하지만, 《世說新語》에는 그 용례가 보이지 않는다.

이밖에도 조동사 ‘可以’는 부정부사 ‘不’, 부정동사 ‘無’와 함께 사용되어 이중부정문을 이루기도 하는데,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면,

- (18) 四海不可以無主. 《三國志·蜀書·先主傳》
(온 세상에 군주가 없어서는 안됩니다)
- (19) 爵不可以無功取. 《三國志·蜀書·張裔傳》
(작위는 공이 없는 사람이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이중부정문은 《三國志》에만 2회 출현한다.

3.5. ‘부정사+조동사(敢)+부정사’ 구조

중고시기 세 문헌 중에서 두 개의 부정사와 조동사 ‘敢’이 사용되어 만들어진 이중부정문을 예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20) 生存之時, 謹敬供養, 死不敢不信. 《論衡·祀義》
(생존해 계실 때는 삼가 공경히 봉양하고, 돌아가시면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안된다)

- (21) 不敢不竭臣子之懷 《三國志·魏書·華歆傳》
(신하의 충성을 감히 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 (22) 酒以成禮, 不敢不拜 《世說新語·言語》
(술을 마실때는 예의를 지켜야하니, 절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위의 예들은 두 개의 부정부사 '不'과 조동사 '敢'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이중부정문인데, 이러한 유형의 이중부정문은 《論衡》에 1회 출현하고, 《三國志》에는 4회 출현하며, 《世說新語》에 2회 출현한다.

이밖에도 조동사 '敢'은 부정부사 '不', 부정동사 '無'와 함께 사용되어 이중부정문을 이루기도 하는데,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면,

- (23) 示象生存, 不敢無. 《論衡·亂龍》
(조상이 살아 있을 때처럼 대하는 것을 나타내니,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이중부정문은 《論衡》에만 1회 출현한다.

3.6. '부정사+조동사(宜)+부정사' 구조

중고시기 세 문헌 중에서 두 개의 부정사와 조동사 '宜'가 사용되어 만들어진 이중부정문은 《論衡》에만 나타나는 데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면,

- (24) 不宜無後. 《論衡·死僞》
(마땅히 후손이 없어서는 안된다)

조동사 '宜'가 부정부사 '不', 부정동사 '無'와 함께 사용되어 만들어진 '不宜無'형식의 이중부정문은 《論衡》에만 1회 출현하고, 나머지 두 문헌에는 그 용례가 보이지 않는다.

아래의 표는 중고시기 《論衡》, 《三國志》, 《世說新語》에서 나타난 '부정사+조동사+부정사'구조로 된 이중부정문의 종류와 그 출현횟수를 정리하고, 아울러 선진시기 이중부정문도 함께 나타내었다.¹⁰⁾

【표2】 상·중고시기 ‘부정사+조동사+부정사’구조 이중부정문 통계표

시기 문헌 구조		先秦				東漢	魏晉南北朝	
		論語	左傳	孟子	莊子	論衡	三國志	世說新語
得	不得不	0	0	0	4	7	10	7
	不得無	0	0	0	0	1	0	0
可	不可不	2	8	1	2	0	25	4
	不可無	0	0	0	0	1	1	0
能	不能不	0	0	0	0	7	1	1
	不能無	0	0	0	1	0	2	0
	無能不	0	0	0	0	0	0	1
可以	不可以不	1	6	0	1	1	3	0
	不可以無	0	2	1	1	0	2	0
	不可以弗	0	1	0	0	0	0	0
敢	不敢不	3	6	2	0	1	4	2
	不敢無	0	0	0	0	1	0	0
宜	不宜無	0	0	0	0	1	0	0
統 計		6	23	4	9	20	48	15

위의 【표2】를 통해 보면, 중고시기 세 문헌의 ‘부정사+조동사+부정사’구조 이중부정문이 선진시기 이중부정문과 비교하여 볼 때 가지는 가장 큰 특징으로는, 선진시기 《莊子》의 이중부정문에서만 사용되었던 조동사 ‘能’과 ‘得’이 중고시기 세 문헌에는 모두 사용되고, 출현횟수도 많아졌으며, 조동사 ‘宜’가 사용된 이중부정문도 중고시기 《論衡》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10) 선진시기 이중부정문의 자료는 玄盛峻, 2008 참조.

4. 나오며

본고에서는 중고시기 대표적인 문헌이라고 할 수 있는 《論衡》, 《三國志》, 《世說新語》에서 사용된 이중부정문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아, 세 문헌에 나타나는 이중부정문이 구조적으로 어떠한 유형으로 분류되는지 상세히 살펴보고, 선진시기 이중부정문과 대조하여, 간략하게나마 중고시기 이중부정문 구조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추출해 낼 수 있었다.

1. 선진시기 이중부정문과 비교하여 볼 때, 중고시기 《論衡》, 《三國志》, 《世說新語》에 나타난 이중부정문의 총 출현빈도가 상대적으로 더욱 많아졌다.

2. 중고시기에 이음절 부정사 ‘未嘗’과 ‘未曾’이 생겨나면서, 이중부정문에도 이들 부정사가 사용되어, ‘未嘗不’, ‘未嘗無’, ‘未曾不’ 형식의 새로운 이중부정문이 중고시기 세 문헌에 출현하였다.

3. 선진시기 《莊子》의 이중부정문에서만 사용되었던 조동사 ‘能’과 ‘得’이 중고시기 세 문헌에는 모두 사용되고, 출현횟수도 많아졌으며, 조동사 ‘宜’가 사용된 이중부정문도 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중고시기 이중부정문 구조 전체의 통계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3】 상·중고시기 이중부정문 구조 통계표

시기 문헌 구조	先秦				東漢	魏晉南北朝	
	論語	左傳	孟子	莊子	論衡	三國志	世說新語
부정사 + 부정사	1	31	19	29	67	74	23
부정사+ 조동사+ 부정사	6	23	4	9	20	48	15
통 계	7	54	23	38	87	122	38

《參考文獻》

- 葛佳才,《東漢副詞系統研究》,岳麓書社,2005.
- 甘露,〈甲骨文中的雙重否定句〉,《古漢語研究》第2期,2001.
- 高育花,《中古漢語副詞研究》,黃山書社,2007.
- 郭萬青·楊世勤,〈《國語》雙重否定結構分析〉,《荷澤學院學報》第3期,2007.
- 郭昭穆·汪坤玉,〈常見的雙重否定的結構類型和運用〉,《人大複印資料》第4期,1985.
- 段業輝,《中古漢語助動詞研究》,南京師範大學出版社,2002.
- 柳士鎮,《魏晉南北朝歷史語法》,南京大學出版社,1992.
- 呂叔湘,〈疑問·否定·肯定〉,《中國語文》第4期,1985.
- 馬學東,〈淺析雙重否定句的形·量·態〉,《求是學刊》第3期,1998.
- 孟建安,〈談雙重否定句式〉,《修辭學習》第2期,1996.
- 孟建安,〈再談雙重否定〉,《南都學壇》第2期,1998.
- 燕 蕊,〈雙重否定句的種類與功能〉,《荊州師專學報》第3期,1987.
- 符達維,〈對雙重否定的幾點探討〉,《福建論壇》第6期,1986.
- 孫英杰,〈解析雙重否定的特徵〉,《牡丹江師範學院學報》第1期,2006.
- 張宗正,〈否定句·雙重否定句和三重否定句〉,《語文導報》第9期,1985.
- 韓學重,〈先秦散文的否定法研究〉,忠南大學校 博士學位論文,1993.
- 玄盛峻,〈上古漢語五部文獻中的雙重否定結構〉,《中國文化研究》第12輯,2008.

《中文提要》

雙重否定是語言中表示肯定的一種重要形式,其結構形式在甲骨文中已有使用。本文選用《論衡》、《三國志》和《世說新語》等三種中古文獻為主要研究材料,對中古時期雙重否定句的結構進行全面深入的描寫和分析。

關鍵詞: 中古漢語, 否定結構, 特殊否定, 雙重否定, 結構形式

이 논문은 2009년 5월 08일에 접수되어 2009년 6월 17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09년 6월 20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